

黑白으로 담아낸 도도한 시간의 흐름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고영중 작가

“제 작품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돌 듯 흘러간 곳에 다시 새로운 물결이 밀려드는 순환 그리고 허무를 담아내고자 했어요.”

고영중 작가 초대전 ‘흐르고 흐르고 흐르다’가 오는 12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에서 열린다.

흑백의 물감과 붓으로 물의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검은 폭포’, ‘시무지기’ 등 역동적인 물의 형상을 담은 회화 26점을 선보인다.

고영중 초대전 ‘흐르고 흐르고 흐르다’...오는 12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



‘그대 흘러서 어디로...’



(작가 제공)

특히 그의 작품 중 ‘시무지기’는 화순 이서에 자리 잡은 폭포로, 비가 오면 세 개의 무지개가 보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작가는 그 무지개를 발견할 순 없었지만, 비오는 날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강렬한 물줄기를 흑백의 조화로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의 작품은 무엇보다 친절하다. 20여점의 작품 옆



‘시무지기-검은 폭포’

시간의 흐름 속에 영원한 것은 없고, 젊음의 아름다움이나 굳은 약속의 말도 결국엔 희미해지잖아요. 물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론 거세게 자신만의 흐름으로 흘러가며 세상을 바꾸는 ‘물’의 거친 숨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뤄보고 싶어요.” /최명진기자

수목으로 풀어낸 물의 속성, 자연·세월의 끝없는 순환 메시지 여백美·역동적인 물의 형상 담아낸 ‘검은 폭포’ 등 26점 선봬

그의 회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물의 흐름’을 담고 있다. 위에서 내리꽂는 폭포 가운데 푸른 색이 더해지기도 하고, 거센 바람에 떠밀려 철썩거리는 바다의 파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수목에서 오는 특유의 분위기는 비장하면서도 진지함을 줍니다. 편안한 느낌으로 관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게 흑백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그림 속 장소는 승춘보를 따라 만나는 영산강이나 물결이 일렁이는 체석강, 서해바다를 주된 모티브로 하고 있다.

“흐리지만 그 중에서도 투명한 느낌의 바닷물에서 영감을 받아요. 비바람이 치거나 거센 풍랑이 불 때 움직이는 찰나의 요동치는 물결을 그려냈어요.”

에는 그가 작업 중에 떠올린 생각 등이 담긴 작품해설이 붙어있다.

“누구에게나 ‘쉬운’, ‘만만해보이는’ 그런 작품이면 좋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곧바로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게끔요. 관객의 느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림이야말로 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듯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의 작품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월의 끝없는 순환을 말하고 있다.

“물이야기는 마치 내가 풀어야 할 ‘숙제’ 같아요.”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공모

공연 기획·제작...오는 5-8일 접수

전남도는 3일 “전남도립국악단을 새롭게 이끌 제8대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국악단 공연 전반에 관한 업무와 함께 공연 작품의 기획·제작, 단원의 지

휘·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재위촉이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과 2년 이상 예술단 예술감독(상임지휘자·상임

안무자 등)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계획서 등이다. 전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31)로 오는 5-8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양식은 전남도 누리집 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우욱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예향 남도의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참신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박영재 광주시 학예연구사 광주국악협회 공로상 수상

박영재(사진) 광주시 학예연구사가 국악 및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국악협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광주국악협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예총회관 방울소리공연장에서 2024 제37차 정기총회에 앞서 박영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국악 발전에 이바지한 임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박 학예연구사는 2017년부터 광주시에 근무하며 시민 문화향유 증대와 국악, 전통무용 등 전통문화 보전 전승을 위해 광주 무형유산 지정에 노력해왔다.

멸실해가는 무형유산 기록보존을 위해 ‘광주 무형유산기록화 사업’을 기획, 예능 보유자의 생애와 보유 예능,



전승 환경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했다. 아울러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 및 미디어기술로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지역모델을 개발하는 등 광주 문화유산을 아시아와 공유하는 데 공헌했다.

함대선 광주국악협회 회장은 “박 학예연구사는 광주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거듭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러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광주국악협회 회원 전체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으로 공로상과 공로패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2024 겨울에 찾아온 나뉠 국악기탐정단’ 활동 모습

빛고을아동센터와 함께하는 ‘2024 나뉠 국악기탐정단’ 성료

국악콘텐츠제작소나뉠, ‘국악 저변확대’ 첫 사회환원사업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뉠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8일까지 광주 지역아동센터 8곳을 대상으로 ‘2024 겨울에 찾아온 나뉠 국악기탐정단’을 진행했다.

‘겨울에 찾아온 나뉠 국악기탐정단’은 나뉠이 자체 기획한 첫 사회환원 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국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국악기 이름 맞추기’, ‘연주 방법과 재료에 따라 국악기 분류하기’, ‘작은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나뉠이 순수 제작한 국악기보드 세트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끄는가 하면 해금과 향피리, 생황으로 ‘아리랑’, ‘언

제나 몇 번이라도’, ‘문어의 꿈’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며 국악의 맛과 아름다움을 전했다.

체력이 끝난 후에는 국악기보드 세트와 국악 엽서 등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국악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현우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뉠 대표는 “이번 국악기탐정단을 시작으로 사회 환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사회에 음악과 예술, 문화로 이바지하고 아이들에게 국악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취급점 모집

당뇨·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드신 후 50분 후 당을 체크하십시오.
당일 즉시 30-50mg 이상
당이 떨어집니다.
확인하십시오.
조건 없이 무조건 7일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등록허가 제품,
특허청 출원 제품,
농협생 산물배상 3억 가입 제품.
문자만 주십시오.

사람을 찾습니다

- 무료 시음회 참석하실 분 -

-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 고혈압으로 시달리신 분
- 고혈압, 당뇨 혈당을 정상화하고 싶으신 분
-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
- 말이 필요 없습니다. 50분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조건 없이 7일분 보내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등록 제품 / 특허출원 등록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대양식품(주) (문자 및 문의) H.P 010-4624-5046 (농협 : 302-0078-2035-31 유한성)
(단, 택배비 소비자 부담 5,000)

마시는 알부민 골드α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기력이 떨어져 힘들어 하시는 분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지치신 분

기초 건강 및 건강 증진을 원하시는 분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 직장인, 청소년, 수험생, 노년층

1개월분(30포) : 148,000원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마시는 알부민α 검색

(주) 보람 약품

주문 : yuhanbio@naver.com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 유한은

시군 대리점 모집

광주본사 : 010-4624-5046